#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성평등 도시 실현

남동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는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 지정 협약을 했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 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남동구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 된 이후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모두가 평등하게 ▲여성이 당당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복한 돌봄 ▲여성 이 참여하는 도시 등 5대 분야에서 지역 특성 과 구민 참여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중점적으 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약국·치과사무원, 실버보드게임지도사 양성', 안심 환경 '안심 귀갓길' 조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돌봄 마을 '육아 쉼터' 활성화 등을 추 진해 왔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남동구는 2026년부터 지정기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5대 목표와 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우리 구와 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 며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 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동구, 겨울철 재난 대비 종합 대책 추진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폭설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는 2026년 3월15일까지 한층 강화 된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현장 중심 사전 대비 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ZERO',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 실무반 기능 별 임무 정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확충 ▲ 비상근무 체계 고도화 등 종합적인 대비 태세 를 구축해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 준비를 마 쳤다

특히 올해는 제설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이면도로 및 급경사지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열선 설치 범위를 기존 8개 노선에서 13개 노선으로 5개 노선을 신규 설치했다. 또한 방축고가교 내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염수저장탱크를 기존 2만L에서 4만L로 증설해 적설·결빙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4개 동 급경사지에 '이동형 원격 제설시스템' 17대를 신규 도입하여제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행로·마을안길 등 후속 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제설 장비 7대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보행 안전 확보에도힘을 더했다.

###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인천시 최고 정책, '천원주택'

전국 확대 필요 인천시 정책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현장 설문 실시 단돈 1천 원으로 '행복'을 사는 인천시, 국민 공감 얻으며 큰 호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혁신 적인 '천원 정책' 시리즈 중 주거 부담 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사업이 국민 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 로 확대되면 좋을 인천시 천원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표를 얻 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인천시 홍보부스에서 현장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458명의 관람객이 인천의 대표 천원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투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인천시의 대표 천원 정책은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i) 바다패스'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천원택배' ▲청년층 식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 아침밥'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천원티켓' 등 다양하다.이중,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닌 '천원주택'이었

조사 결과, 전체 투표자 중 39%가 '천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을 정책으로 꼽아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천원 아침밥(17%) ▲아이(i) 바다패스(15%) ▲천원택배(15%) ▲천원티켓(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화하는 주거 문제

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인천시의 혁신적인 주거 정책이 실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인천시 홍보관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천원정책을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원의 행복, 천배의 감동'을 주제로 천원주택의 집 모양의 독창적인 공간 디자인과 천원정책 홍보, 포토존, 이벤트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부대행사로 열린 '지방자치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 '천원주택 행복수집' 광고 영상이 장 려상을 수상하며 천원주택이 단순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행복 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 는 점을 널리 알렸다.

인천시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은 "홍보관 관람을 통해 인천의 좋은 정 책들을 알게 되었다"며, "천원주택이 나 바다패스 같은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의 천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옹진군, "매력·활력·실력 어촌마을 만들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산 스테이호텔에서 관내 어촌계장, 간사, 사무장, 관계기관, 지구별 수협등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매력·활력·실력의 3력 어촌마을 만들기'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 기반을다지며, 2026년 군이 중점적 으로 추진하는 어촌 활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어촌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북 군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등 소득원개발을 위해 선진지를 방문 하고, 옹진군 어촌 갯벌산업 활성화 및 수산분야 홍보사항, 옹진군 수산업 종 합발전에 대한 옹진군수 특강을 실시 하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어촌의 미래는 현장을 이끌어가는 어촌계장의역량에 달려 있다"며, "행정과 어촌이 한데 어 우러져 매력있고 활력 넘치며 실력 있 는 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 경쟁력 강화에 나설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 길상면, 강화 나들길 집중 점검 추진

강화군 길상면(면장 서광석)이 최근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쾌 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강화 나들길 2코스, 3코스, 8코스 중 관할 구 간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구간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 안내·이정표, 쓰레기 적치 여부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강화 대표 관광길인 나들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가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만큼, 길상면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광석 길상면장은 "이용객이 안전 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 나들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 전했다.

심하린 기자

특히 구는 계양아라 온 북단에 '화이트 트리

마을'을 조성해 지난 11

월 20일부터 '2025 크리

스마스 페스타'를 시작

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축제를 운영한다. '제4회

계양 빛 축제' 역시 동 일 기간 진행되며, 빛·경

관·포토존이 결합된 겨

울철 야간 콘텐츠로 지

역경제에 긍정적인 효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문해력 길라잡이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은 20일부터 27일까지 초등 교원 305 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과정 문해력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율적 설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내용과 문해 력 적용,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진로 연계교육 운영 사례, 교육과정·수업· 평가 설계 방안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서지역 교원의 참여 여건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중 계를 병행하여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문해력은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기본 역량이며, 학생 학습성 과와 직접 연관된다"며 "연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과정 전문성 지원을 위해 「한눈에 보 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이해자 료」와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운 영 사례집」을 제작해 1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심하린 기자

## '제4회 계양 빛 축제' 내년 1월까지 연장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제4회 계양 과가 기대된다. 빛 축제'의 운영 기간을 기존 연말에서 또한 구는 '겨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 4회 계양 빛 축

했다. 겨울철 소비 위축 시기를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올해 빛 축제는 '꿈(Dream)'을 주제로 지난 9월 5일 점등을 시작했다. 구는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도심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기간을 확대했으

며, 연말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크리스

마스 조형물도 추가 설치한다.

또한 구는 '계양이라온 빛의거리', '제 4회 계양 빛 축제', '2025 크리스마스 페 스타'를 대상으로 한 '빛으로 물든 계 양' 사진 인증 이벤트를 12월 7일까지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의 겨울밤 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 한 기운이 퍼지길 바란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계양의 야간 명소에서 따뜻 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 다.

